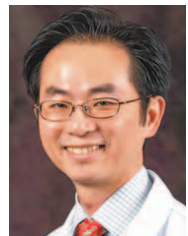


美 코벤스연구소 김인중 박사 ASF 예방 공로 농림부장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김인중 박사

미국 수의병리전문(DACVP)인 김인중 박사(건국대학교 수의학과 96학번)이 지난 2월2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박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자문해 ASF를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김현수 농림부장관의 표창장을 받은 것이다.

김 박사는 ASF 발생 직전 돼지의 임상 증상과 감염 소견에 대해 정부 및 학계 관계자들에게 대해 선제적 교육을 시행했다. ASF 발생 직후에는 정부와 국회, 관련 학회에 방역정책을 구체적으로 자문했다.

김 박사는 루이지애나주립대에서 전염병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캔사스주립대에서 수의병리전문의를 취득한 수의전염병분야의 전문가다. 현재 세계적인 병리전문연구소인 코벤스연구소에서 병리학자로 근무 중이다.

김 박사는 2018년 말 중·북 접경지역에서 야생 멧돼지의 ASF 감염 사례를 입수하고 국내 관계자에게 복합을 통한 국내 전파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했다.

지난해 2월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대학 여러 곳을 방문해 ASF의 임상증상과 부검소견 등 최신 정보를 수의사와 연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환경부의 야생 멧돼지 임상소견 리프트넷과 검사시료 채취방법의 오류를 발견하고 즉각 수정을 요구해 이후 폐사체로부터 양성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북한으로부터 멧돼지 유입가능성 및 전파가능성을 경고했으며 1·2차 차단선을 설정하고 철조망을 설치할 것을 자문했다. 10월에는 한국을 재방문하여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후 방역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고, 그 공로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박민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

너도나도 반려동물 공약 선언한 21대 국회

반려인 마음 잡은 장밋빛 공약... “꼭 지켜줘”

진료비 개선·테마파크 조성 등 실현 위해선 꾸준한 관심 필요



정치권에서도 반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에 앞장서겠다”는 주요 정당들의 약속에 반려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렸다. 반려인들의 관심은 ‘각 정당과 당선인들이 반려동물 공약을 잘 지킬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1000만 명으로 급증한 반려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정치권은 앞 다퉈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이 내놓은 반려동물 공약은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적 보험 제도에 초점이 맞춰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 ▲지자체별 공설 동물장묘시설 확대·반려동물 거래 표준 계약서 및 이력제 도입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강화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에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내용 포함,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계획 등이다.

민주당은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로 인한 고충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진료비 사전 고지와 공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공시제가 정착되면 병원별 진료비를 비교해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민주당은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시설 투자를 강화해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은 ‘원조 개통령’ 이용종 연임대 교수를 ‘2020 총선 공약개발 특별위원회’ 반려동물 정책개발단장으로 위촉하면서 반려인들의 마음을 정조준했다.

통합당은 5대 공약으로 ▲진료항목 표



▲민주당 박병석 당선자 ▲통합당 추효영 당선자



▲민주당 박상혁 당선자 ▲통합당 김명식 당선자

준화 및 세제혜택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센터 지원 강화 ▲반려동물 관리 기구 마련 및 동물경찰제 확대 ▲유기견 보호 및 입양 지원 강화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 도입 등을 내놓았다.

이 중에서도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센터 지원 강화’ 공약은 반려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명절을 전후해 유기동물이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명절이나 휴가철에 반려동물 돌봄센터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유기견 입양인 및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대 국회 당선인들도 반려인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원 조성의 경우 김

영식 당선자(경북 구미·통합당), 박병석 당선자(대전 서구·민주당), 박상혁 당선자(경기 김포·민주당), 추효영 당선자(대구 수성·통합당) 등 여야를 막론한 당선인들이 약속하면서 현실화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화려한 반려동물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에 그칠까 우려하고 있다. 모 당선인은 “반려동물 공약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기보다는 반려인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려동물 공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반려인과 관련 단체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승 객원기자 inewsman@nate.com

닥터아이앤비-우진비앤지, 동물 암 치료제 공동 연구

닥터아이앤비는 우진비앤지와 PDT(광역학) 기술을 이용한 동물의 표재성 암 치료 후부 물질의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우진비앤지는 닥터아이앤비와 협업을 통해 광감작제(Photosensitizer)를 동물용의 약품으로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자사 시설을 통해 생산 및 해외 수출할 예정이다.

송영규 닥터아이앤비 대표는 세계 최초로 PDT 기술을 이용해 염증치료에 효과적인 레이저 치료기와 의약품 출시를 준비

하고 있다. 닥터아이앤비가 보유한 고순도의 광반응물질 개발 및 광역학치료 핵심기술은 빛에 반응하는 광감작제를 사용해 부작용 없이 염증과 종양세포를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광감작제를 통한 광역학치료를 동물의 피부 또는 환부에 광증각제를 도포 및 주사해 이 약물이 종양세포 등의 병든 세포에 선택적으로 축적되게 하는 식이다.

닥터아이앤비는 자사가 개발한 의료기기와의 의약품 B2B(기업간 거래) 상품으로 거

래하고 있다. 우진비앤지와는 이번 협업은 닥터아이앤비의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닥터아이앤비는 반려동물 치료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분야에서도 명성을 날리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와디즈에서 닥터아이앤비가 선보인 모이스위시 LED 전용 화장품 펀딩이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닥터아이앤비의 모이스위시 LED 전용 화장품은 펀딩 기간 단 6일 만에 1499%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호승 객원기자



우진비앤지 서울 사무소에서 강재구 우진비앤지 대표(왼쪽)와 송영규 닥터아이앤비 대표가 PDT(광역학) 기술을 이용한 동물의 표재성 암 치료 후부 물질의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 팻뉴스

건강

팜비오·SK케미칼 공동 마케팅 협약

한국팜비오(회장 남봉길)는 SK케미칼과 비뇨기의약품의 공동 마케팅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쏘메토320mg연질캡슐’을 비롯해 요로감염증 치료제 ‘모누톨산’, 간질성 방광염 치료제 ‘케그론캡슐’, 요석 전문 치료제 ‘유로시트라-케이서방정’, ‘유로시트라-싸산’ 등 5개 품목이다. 공동마케팅은 일반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근당건강 “아이커 매니저 드립니다”

중근당건강은 어린이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 ‘아이커’의 건강기능식품대상 5년 연속 수상을 기념해 29일까지 아이커 구매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아이커 매니저’를 제공한다. 아이커 매니저는 키 측정기와 측정 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구성되었다. 아이커를 섭취하면서 아이커 매니저를 활용하면 자녀의 키 성장 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정용운 기자

명지병원, 경기북부권역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 지정

비급여 진료비 최대 50% 지원 내년 1월부터 전용 센터 운영



명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경기북부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됐다. 명지병원 치과 진료실. 사진제공 | 명지병원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경기북부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해당지역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및 구강관리사업, 장애인 진료 전문·보조인력 교육,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치과응급의료체계의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 50%, 치과영역 중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기타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명지병원은 구강진료전담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과 진료를 위해 올해 말까지 614㎡ 규모의 전용 진료센터를 갖추고 내년 1월

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비는 시설비와 장비비 등 모두 31억여 원(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포함) 규모이다.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에는 장애인의 진료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와 출입구, 주차 공간, 예진실, 구강교육실, 전신마취 수술실, 회복실 등이 갖춰진다. 특히, 기존 명지병원 치과의 인력과 기반(인프라)을 공유해 치료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

침이다. 장애인용 기본 치과 진료 장비와 함께 방사선장비, 전신마취 및 심폐소생장비, 소독 및 멸균장비, 근관치료기 등의 치과 치료기구, 진료용 및 수술용 기구와 구강진료센터 등의 소기구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치과 진료와 함께 장애인 구강진료 치료 및 예방사업, 지역사회 장애인 구강진료 및 구강보건 담당자 교육사업, 장애인 구강보건 연구사업, 장애인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등에도 적극 나선다.

김진구 명지병원장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빠르고 정확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권역구강진료센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시스템 정비를 통한 장애인 구강진료 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이는 장애인 대상의 구강보건 관련 통계산출과 연구의 기반이 되며, 곧 장애인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이 실현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신신제약 ‘신신파스아렉스’ 새 TV 광고 모델에 김주헌

신신제약은 배우 김주헌을 모델로 한 ‘신신파스아렉스’ 신규 TV 광고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김주헌은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2’에서 외과전문의 박민국 역을 맡아 열연했다.

이번 광고는 신신파스아렉스의 핵심 특징인 냉과 온, 두 번의 찜질 기능을 하나에 담아낸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온도의 차이가 효과의 차이’라는 메시지를 내세웠다. 특히 열화상 촬영을 통해 신체에 작용하는 냉찜질과 온찜질 효과를 시각화한 점이 돋보인다.

신신파스아렉스는 처음에는 냉감 작용으로 붓기를 빼주고 차츰 온감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도와 통증을 완화해 준다. 유기용매 대신 천연고무 연합 방식으로 제작되어 친환경적이며 피부 안전성과 함께 양방향 신축성 원단을 사용해 밀착성도 우수하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